

韓國 經濟學教育 및 研究의 現況과 課題

李 俊 求*

<目 次>	
I.	머 리 말
II.	經濟學教育의 現況과 課題
III.	經濟學研究의 現況과 課題
IV.	韓國 經濟學 定立의 課題
V.	맺 음 말

I. 머 리 말

다른 모든 學問分野에서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經濟學이 교육되고 연구되어 온 歷史는 지극히 日淺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이 韓國人들에게 처음 紹介된 時點을 정확하게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西歐의 學問들이 밀려 들어 오던 舊韓末을 대략 그 時點으로 잡는다면 소개된 지 百年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當時에 있어서의 경제학의 紹介란 것이 문자 그대로의 소개 이상의 것이 아니었음이 거의 분명하다면, 본격적인 研究가 행해져 온 것은 그보다도 훨씬 짧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¹⁾

그래도 研究다운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日帝時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데, 당시의 분위기는 마르크스經濟學에 대한 관심이 단연 압도적인 것이어서 新古典派 經濟學에 관한 연구는 고작 몇 사람에게 의해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解放 直後까지 별 변화없이 그대로 지속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 고전과 경제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韓國에 있어서의 近代 經濟學의 실질적인 歷史는 기껏해야 40年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日淺한 역사를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준의 經濟學教育과 研究의 體制를 갖춘 것은 상당히 급속한 發展의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1) 姜命圭 教授(1983)의 論文을 보면 舊韓末에 있어서의 西歐經濟學의 소개가 거의 전적으로 外國 書籍의 翻譯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해 우리의 수준이 아직도 世界的인 수준을 겨냥하기에는 지극히 力不足이라는 점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經濟學界가 앞으로든 먼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우리 경제학계가 안고 있는 숙제는 비단 世界水準에서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知的인 蓄積을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固有的 歷史, 文化, 制度, 그리고 慣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普遍的 狀況과는 다른 特殊한 經濟與件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經濟學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世界 經濟學界의 普遍的인 흐름에 同參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固有的 領域을 확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책임이 생기게 된다.

우리 經濟學界의 현상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二律背反的인 要求의 重壓에 눌러 精神分裂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의 二律背反性이 단순히 表面的인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두 要求가 서로 相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두 요구를 同時에 충족시키기 힘들다면 어차피 어떤 優先順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족시킬 수밖에 없을 것인데, 바로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나 의견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經濟學界는 아직도 뚜렷한 목표없이 漂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方向感覺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本論文이 명목상으로는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 敎育과 研究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결국 韓國의 經濟學이 앞으로 指向해야 할 進路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筆者와 같이 연구의 年輪이 짧고 경제학 전반을 眺望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감히 손댈 수 없는 문제에 손을 대고 있는 셈이 된다. 필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필자의 素朴한 견해를 발표한다는 것이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의미를 찾아 본다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主題에 관한 의견의 개진은 주로 元老 經濟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未熟하나마 보다 젊은 階層의 견해도 제시되어야 할 계제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本論文에서 개진되고 있는 견해가 少壯 經濟學者 전체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筆者 개인의 견해일 뿐이다.

II. 經濟學教育의 現況과 課題

여타의 傳統的인 學問分野에 견주어 볼 때 韓國에서 經濟學 教育이 시작된 역사는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거의 모든 大學에서 경제학 교육은 核心的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主要 大學에 經濟學科가 개설되어 있음은 물론, 學科定員의 規模에 있어서도 他 學科에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 이르렀다. 1988년 현재 全國의 78個 大學에 經濟學의 學部課程이 개설되어 있어 총 33,711名에 이르는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碩士課程이 47개 대학에서 1,066名, 그리고 博士課程이 35개 대학에서 288名에 이르고 있다.⁽²⁾

이와 같은 量的 成長에 비해 質的인 成長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教育의 質的 向上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指標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한 이 질문에 대해 딱 부러지는 대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 모두가 韓國의 經濟學 教育이 엄청난 質的 向上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節에서는 오늘날의 經濟學 教育의 現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課題에 대해 간단히 논해 보기로 하겠다.

1. 經濟學教育의 現況

經濟學 教育의 質的 水準은 教科課程의 적합성과 講義內容의 충실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韓國에서 西歐經濟學이 본격적으로 教育되고 研究된지 40년이 채 못된 지금의 時點에서 볼 때, 그 연구의 수준은 아직도 世界的인 次元에서의 業績을 순위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教育에 있어서만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學部水準에 있어서 몇 大學의 教育內容은 世界的 有數한 대학과 견주어 보아도 결코 손색이 없을 만큼 충실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教科課程의 측면에서 볼 때 韓國의 大學은 개설하고 있는 專攻科目의 數나 多樣性에 있어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설된 과목 모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으나, 일단 개설된 과목의 면모만을 놓고 본다면 經濟學의 主要 分野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專攻科目들이 상당한 정도로 標準化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2) 文敎部(1988)의 이 統計는 「經濟學科」라고 이름붙여진 學科에 국한하여 추출된 것이므로 國際 經濟學科라든가 貿易學科 등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經濟學科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學生數는 더욱 커질 것이다.

〈表 1〉各大學의 專攻科目 開設現況

科 目	서울大	檀國大	忠南大	仁川大	科 目	서울大	檀國大	忠南大	仁川大
經濟原論	*	*	*	*	計量經濟學	○	*	○	*
微視經濟學	*	*	*	*	產業組織論	○	○	○	○
巨視經濟學	*	*	*	*	勞動經濟學	○	○	○	○
經濟數學	○	*	○	○	農業經濟學	○	○	○	○
經濟統計學	*	*	*	—	國際貿易論	○	*	*	*
經濟學史	*	*	*	*	分配理論	—	○	○	—
韓國經濟史	○	*	○	*	韓國經濟論	○	○	*	*
貨幣金融論	○	○	○	○	法學系列	○	—	○	—
財政學	○	*	*	○	經營學系列	○	*	○	—
數理經濟學	○	*	○	○	政治經濟學系列	○	○	○	○

資料：各大學의 便覽

註：1) *：專攻必須，○：專攻選擇，—：未開設

〈表 2〉서울大學校 經濟學科의 專攻科目 變動推移

	56	66	79	89
經濟原論	*	*	*	*
微視經濟理論	—	○(價格理論)	*	*
巨視經濟理論	*	○(國民所得論)	*	*
經濟學史	*	*	*	*
經濟數學	○	*	—	○
統計學	*	*	—	—
計量經濟學	○	○	*	*
近代經濟學	—	—	○	○
計量經濟學	—	○	*	○
貨幣金融論	*	*	*	○
財政學	*	*	*	○
農業經濟學	—	*	○	○
勞動經濟學	—	○(勞動問題)	○	○
韓國經濟學	*	*	○	○
國際經濟學	○	○	○	○
國際貿易論	*	*	○	○
國際收支論	—	—	—	○
國際經濟學	—	—	○	○
貨幣金融政策	—	○	○	○
財政政策	—	○	○	○
產業組織論	—	—	○	○
產業關聯論	—	—	○	○
產業經濟史	—	—	○	○
各國經濟	—	○	○	○

	56	66	79	89
經濟學史	*	*	*	○
經濟計劃論	*(計劃經濟)	*	○	○
經濟發展論	—	*(經濟成長論)	○	○
經濟體制論	—	○(比較經濟體制論)	○	○
韓國經濟論	*	*	○	○
經濟變動論	*(景氣變動論)	*	○	○
農業經濟政策	*	*	○	○
地域·資源 및 環境經濟學	—	—	—	○
租稅論	—	—	○	○
現代 마르크스 經濟學	—	—	—	○
恐慌論	—	—	—	○
各國經濟地理	—	○	—	—
經營學原理	*	○(經營總論)	○	○
商法論	*	○	—	—
商會通論	*	—	—	—
會計學	*(簿記原理)	*(簿記原理)	○	○
世界經濟政策	*	—	—	—
工業政策	*	*	—	—
社會政策	*	—	—	—
財政學史	*	*	—	—
經濟哲學	○	—	—	—
人口論	○	○	—	—
國際金融論	—	○	—	—
社會科學概論	—	*	—	—
獨占理	—	○	—	—

資料 : 『서울大學校要覽』(1956, 1966),
 『서울大學校學生便覽』(1979, 1989)
 註 : 1) 각 부호의 의미는 <表 1>과 同一.

있다. 이 곳에서 서울과 地方的 國立大와 私立大를 각각 하나씩 임의로 선정하여 개설된 專攻科目을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과목이 必須나 아니면 選擇이나에 관련된 약간의 차이를 빼놓고서는 대학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은 教科課程의 패턴이 韓國의 經濟學 教育에서 定着된 것은 언제인가? <表 2>에는 서울大學校 經濟學科의 專攻科目 變動推移를 50, 60, 70, 80年代에 걸쳐 대표로 한 해씩 뽑아 조사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현재의 패턴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70年代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60年代의 경우도 현재의 패턴과 기본적으로는 일치하나 過渡期여서 아직도 50年代의 殘影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0年代에 개설된 專攻科目의 면모를 보면 經濟學이 여태껏 그 獨自의인 位置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 그 한 예로 1956年度에 經濟學科에서 개설하고 있는 專攻必須科目 23개 중에서 15개가 商學科와의 共通專攻이며 경제학과 固有의 전공과목은 나머지 8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共通專攻科目 중에 商學原論, 簿記原論, 商法 등이 포함되어 必須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인접 商學科와의 구분이 아직 뚜렷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다. 또한 당시에 개설된 경제학 과목들의 分類方式이나 觀點이 오늘날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50年代가 韓國의 經濟學教育에 있어서 아직도 準備期였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격적인 교육은 60年代에 와서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最近에 일어난 教科課程上的 주목할 만한 변화는 政治經濟學, 즉 마르크스經濟學에 관한 강좌가 각 대학에서 속속 개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大學校의 경우에도 1989年度의 教科課程 改編을 통해 現代마르크스經濟學과 恐慌論의 두 강좌를 學部課程에 정식으로 개설하였다. 사회의 분위기가 지극히 硬直的이었던 지난 날에는 마르크스經濟學 그 자체를 논의하는 것조차 禁忌視되었거나, 혹은 그보다 약간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名稱의 講座 아래서 강의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할 때 이제 正式科目으로 개설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발전이 아닐 수 없다. 非公式의인 調査에 의하면 1889년 현재 조사대상이 된 서울 市內의 21個 主要大學中, 13個 대학에서 政治經濟學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9個의 地方國立大學校 중에서는 4個 대학에서 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정치경제학강좌를 개설한 학교의 수는 점차 增加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教育內容의 充實性에 있어서 얼마 만큼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는 어떤 水準에 도달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생각된다. 外國의 경우 學科別로 質的 優秀性의 評點을 매기는 사례를 종종 보지만 우리의 경우에 그와 같은 방법은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³⁾ 따라서 筆者의 個人的인 經驗이나 主觀的인 判斷에 의존하여 논의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筆者는 韓國에서의 經濟學 教育이 상당한 質的 向上을 이루었다는 징표로서, 資質을 갖춘 教授의 수가 대폭 늘었다는 것과 학생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우리말 教科書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두 가지 사실을 우선 들고 싶다. 60年代만 하더라도 각 대학에 그 科目을 가르칠 교수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목만 개설해 놓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교수

(3) 專門家들을 대상으로 한 設問調査, 教授陣의 研究結果에 대한 評價의 방법 등을 주로 쓰고 있는데, 韓國의 經濟學教育水準이 얼마나 向上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들의 겸치기 外部出講은 물론, 政府나 金融機關 등에서 講師들을 빌어다 쓰는 것이 일반적 인 상황이었다. 이들 外部講師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時點에서 볼 때 충분한 資格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뿐더러, 專攻科目의 대다수를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풍토하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직도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풍토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나 講師陣의 資質 그 자체가 현저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전반적 인 教育의 質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教科書의 경우, 60年代 이전에 공부한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選擇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外國語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原書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內容이 不實한 우리말 교과서를 사용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였다. 물론 우리말로 된 책들 중 훌륭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이었으며, 대부분의 分野에서 신뢰할 만한 교과서 들을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西歐經濟學을 배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기초적인 교과서조차 펴낼 수 없었던 우리 學界의 현실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고는 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속제였다. 外國語로 된 교과서에 의존해서 經濟學의 基礎부터 배워야 했다는 사실은, 그로 인해 教育의 效率性이 減少된다는 문제 뿐 아니라 自主的인 教育이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면서 教科書의 著作이 아연 活氣를 띄게 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우리말 교과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도 內容의 多樣性이나 전반적인 水準에 있어서 改善의 여지가 있다고 보나, 대체적으로 보아 만족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우리 經濟學者들에 의한 著作活動이 專門理論의 경지까지 높아지지는 못했으나 教科書를 完備하는 수준까지에는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불과 2,30년 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進歩가 아닐 수 없다.

韓國에서의 經濟學教育에 상당한 質的 向上이 있었다는 것의 間接的인 證據로서 先進國 經濟學界에 한국출신 경제학자의 進出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學部課程을 마치고 海外의 大學院課程으로 留學한 뒤, 現地의 경제학계로 진출하는 것이 이들의 典型的인 학문적 성장경로임을 생각할 때, 이들이 거둔 成功은 곧 한국의 학부 교육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韓國 經濟學界가 거둔 수확과 동시에 그 限界도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 라고 하겠다. 이들이 거의 예외없이 海外로 留學을 하여 大學院課程을 마쳤다는 것은 우리가 大學院 水準에서는 아직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학계가 완전히 自主的인 教育能力을 갖춘다는 것은 大學院을 포함한 自己完結的인 교육체

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대학원 교육을 海外에 의존하는 한 진정으로 自主的인 우리의 經濟學界는 構築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충분히 大學院教育을 시킬 수 있으니 구태여 海外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강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經濟學界의 능력으로 碩士水準까지는 근근히 교육시킬 수 있다고 말해도 되겠으나, 博士를 量産할 정도는 결코 되지 못함은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주 制限된 分野에서 소수의 博士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 앞으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지금과 같은 海外依存이 不可避할지 모른다.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하여 무모한 鎖國으로 돌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經濟學界가 지금까지 보인 成長의 速度를 지속시킨다면 自主的인 教育體系를 갖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學部水準의 교육에서는 世界의 有數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競爭을 할 수 있는 自信을 가지고 있는 한편, 大學院水準에서는 아직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韓國 經濟學 教育의 現住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長期的으로는 實力을 배양하여 自主的인 教育體系의 基礎를 닦고, 短期的으로는 현재의 人的 資源을 최대한으로 活用함으로써 能力의 限界를 넓혀 가는 것이 속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2. 經濟學教育의 問題點과 今後의 課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韓國의 經濟學 教育에는 충분한 能力의 不足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자질하게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기다린다. 이 小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볼까 한다.

첫번째 문제점은 비단 經濟學 教育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教育 全般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暗記爲主의 맹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암기위주의 교육은 分析能力과 應用能力을 충분히 배양시키지 못하는 결함을 가진다. 오늘날의 고도로 分析的인 經濟學 研究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은 우리 學界의 落後性을 더욱 부채질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學生들이 卒業後에 치루어야 하는 就職試驗, 資格試驗 혹은 各種 考試의 문제들이 주로 暗記力을 시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암기에만 치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다. 학생들은 어느 經濟學者가 어느 學說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암기하면서도 경작 그 이론의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경제학 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經濟的 思考 혹은 論理를 습득하게 해주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면 현행의 教育方法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의 문제점은 各 大學이 經濟學의 모든 분야에 걸쳐 최소한 한 명의 教授를 확보하려 하는 식의 百貨店式 經營을 함으로써 가뜩이나 문제가 되는 大學院 教育의 能力을 더욱 低下시킨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博士 한 명을 생산해 내는 데에는 그 分野에 정통한 여러 명의 教授가 공동으로 指導해야만 한다. 그러나 각 대학이 百貨店式 經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교수는 한 두명에 불과한 결과를 빚고 있다. 學生指導뿐 아니라 교수 스스로의 研究를 위해서도 한 科內에 비슷한 專攻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유리한데 현재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大學에서 經濟學科의 教授定員이 고작해야 20名 정도인 상황에서 모든 分野의 專攻을 두루 갖추며, 동시에 분야별로 두꺼운 層을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大學別로 특성에 따라 專門化(specialize)한다면 현재의 制約을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각 대학은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교수를 확보함으로써 그 분야에 教育과 研究를 위한 最小限의 底邊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물론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방안의 즉각적인 실시는 어려울 것이다. 教育의 實質的인 內容보다 이름을 더 중히 여기고, 學脈에 따라 헤어지고 뭉치는 것을 거듭하는 현재의 분위기가 상당히 정돈된 다음에야 이 방안은 실효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 볼 의욕과 용기를 가진 학교부터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매우 冒險的인 試圖일 수 있으나 의외로 좋은 反應이 나올지도 모른다.

만약 이 방법의 즉각 시행이 힘들다면 현재 몇 대학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共同 學點制의 擴大實施를 시도해도 좋을 것이다. 몇 대학별로 명실상부한 教授의 共同풀(pool)을 형성함으로써 指導能力의 提高를 꾀할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지금과 같은 閉鎖的인 분위기하에서는 실현이 어려울지 모른다. 지금의 상황을 지속시킬 때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不實한 指導를 받을 수밖에 없는 學生이다. 만약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教育을 하고자 한다면 舊態를 벗고 좀 더 開放的인 態度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經濟學 教育에 대해 또 하나 더 발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韓國의 經濟를 소재로 한 教育資料가 더욱 풍부하게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市中에 나와 있는 경제학 교과서들 보면 한국경제에서 예를 뽑아 이론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經濟學 教育이 매우 抽象的인 수준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흥미

를 半減시키고 있다. 國籍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창한 命題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교육의 효율을 높인다는 견지에서 한국경제를 소재로 한 교육자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겠다. 이것은 어느 한 두 經濟學者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은 資料를 發掘하고 이를 널리 共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비로소 이룩될 수 있는 과업이라고 하겠다.

III. 經濟學研究의 現況과 課題

앞 節에서 논의한 韓國에서의 經濟學 教育의 문제도 우리 經濟學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나, 그보다도 더 核心的인 課題는 경제문제에 대한 研究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經濟學界의 位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 한다면, 教育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하는 것보다는, 研究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궁극적 평가는 그 학문이 이루어 낸 理論的 成果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筆者의 솔직한 견해는 韓國의 經濟學이 아직도 移植의 段階를 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특성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경제학 연구의 상황을 살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의 理論」이라고 자부할 만한 이론적 업적이 나오지 못한 것은 한국의 경제학이 移植의 단계를 청산하고 定着段階에 발을 들여 놓기에는 아직 時機尙早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경제학계의 研究實績이 아직도 世界的인 水準에 어림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텐데, 이러한 世界水準과의 隔差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教育의 측면보다 研究의 측면에서 훨씬 그 격차가 크다는 느낌이 든다.

앞 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韓國에서의 經濟學教育은 최소한 學部水準에서는 敎科課程의 多樣性이라든가 교육내용의 充實性에 있어서 外國의 우수한 大學과 거의 대등한 경지에 이르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研究의 측면에서는 어느 한 分野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제학자가 外國의 경제학자에 비해 相對的인 優位를 점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보기 힘들 뿐더러, 韓國經濟 固有의 문제 마저도 外國에서 개발된 理論的 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같은 폐단은 어떤 學問의 移植段階에서 典型的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기는 하다. 즉 移植의 初期段階에서는 教育의 측면에 보다 활발한 변화가 오게 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의 數字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육의 내용이 보다 충실해지는 단계를 거쳐, 移植의 단계가 끝날 무렵에는 獨自的인 研究를 진행

시킬 수 있는 學者의 層이 형성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인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지극히 通常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節에서는 우선 韓國 經濟學界의 研究現況을 개관해 보고, 이렇게 파악된 현황을 기초로 하여 한국 경제학계가 나아가야 할 進路에 관해 논의해 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1. 韓國 經濟學界의 現況

韓國에 西歐經濟學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활약한 元老들의 懷古談에 의하면 1950年代 初만 하더라도 經濟學者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지극히 적었으며, 경제학자들의 學術의 모임도 거의 全無한 형편이었다.⁽⁴⁾ 그 때에 비하면 불과 4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韓國 經濟學者의 底邊이 눈부시게 成長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경제학계의 量的 成長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質的인 成長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객관적인 확인이 비교적 힘들다고 할 수 있으나 情況的인 證據 정도는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量的인 成長을 보여 주고 있는 指標로서는 經濟學者 數의 증가와 學術團體 數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國內外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경제학자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는데, 筆者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 國內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수는 약 1,500名 내외일 것이다. 이 추산의 근거는 현존하는 經濟學 學術團體 중에서 가장 많은 會員을 보유하고 있는 韓國經濟學會의 1989년 현재 加入者數 1,250名을 기초로 하여, 이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제학자의 수가 200~300名 정도일 것으로 판단한 데 있다. 이 추산이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진실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⁵⁾

韓國 經濟學界의 量的 成長을 보여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學術團體 數의 증가를 제시할 수 있다. <表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52년에 韓國經濟學會가 創立된 것을 필두로 하여, 1957년의 農業經濟學會, 그리고 1962년의 經濟史學會 등 여러 개의 학술단체가 조직된 바 있다. 이와 같은 學會創立의 움직임은 1980年代에 들어 오면서 훨씬 활발해져서, 이제는 一般的인 經濟學者들의 모임 이외에도 各 分野의 專攻者들로 구성된 특수한 목적을 가진 學會도 많이 조직되게 되었다. 表에 제시되어 있는 학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4) 예를 들어 申泰煥 博士(1983)의 글을 참조하라.

(5) 물론 누구를 「經濟學者」로 포함시키느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韓國經濟學會의 會員錄을 보면 누가 보아도 경제학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매우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만 하고 넘어 가기로 하겠다.

〈表 3〉各種 經濟學會 現況

學 會 名	性 格	創 立 年 度	會 員 數
韓 國 經 濟 學 會	一 般	1952	1,250
韓 國 國 際 經 濟 學 會	一 般	1978	500
經 濟 史 學 會	特 殊(經 濟 史)	1962	230
韓 國 計 量 經 濟 學 會	特 殊(理 論, 計 量)	1986	163
韓 國 社 會 經 濟 學 會	一 般	1987	138
韓 國 產 業 組 織 學 會	特 殊(產 業 組 織)	1984	118
韓 國 資 源 經 濟 學 會	特 殊(資 源 經 濟)	1987	91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特 殊(勞 動 經 濟)	1976	140
韓 國 農 業 政 策 學 會	特 殊(農 業 政 策)	1963	200
韓 國 財 政 學 會	特 殊(財 政)	1982	101
韓 國 金 融 學 會	特 殊(金 融)	1989	342
韓 國 農 業 經 濟 學 會	特 殊(農 業 經 濟)	1957	300
韓 國 租 稅 學 會	特 殊(租 稅)	1981	181

註: 1) 個人的인 調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經濟學會로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것임. 會員數의 단위가 십이나 百의 단위로 표시된 것은 어림잡은 수치를 의미함.

이제는 거의 모든 主要分野가 하나의 學會에 의해서 대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表에 제시된 여러 학회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서 1987년에 창립된 韓國社會經濟學會를 들 수 있다. 이 학회가 公式的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은 '韓國의 社會·經濟 分析 및 關聯理論에 관한 研究의 促進, 研究者 간의 交流, 研究成果의 普及'으로 되어 있어 여러 학회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主流經濟學과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회들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⁶⁾

물론 여타의 학회들 사이에서도 자세히 살펴 보면 接近法에 있어서 상당한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主流經濟學의 접근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韓國社會經濟學會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주류 경제학의 흐름에 대한 對抗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反主流經濟學的인 立場의 력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에서 「政治經濟學」이란 명칭으로 통하고 있는 마르크스主義 經濟學이라는 데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학회의 창립은 우리 학계에 마르크스주의적 接近法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復活·定着되었음을 알려 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6) 이와 같은 韓國社會經濟學會의 設立目的은 韓國學術振興財團(1988年)에서 인용한 것임.

〈表 4〉韓國經濟學會 會員의 從事分野別 分類

從 事 分 野	人 員 數	從 事 分 野	人 員 數
大 學 校	816	私 設 研 究 機 關	22
政 府	46	其 他	62
政 府 出 捐 研 究 機 關	66	合 計	1,012

資料：韓國經濟學會 會員錄(1988年度版)

〈表 5〉經濟學關係 學術誌 現況

1. 大學發刊誌

誌 名	刊 種	發 刊 處	誌 名	刊 種	發 刊 處
濟州大產經論集	A	濟州大	經濟論叢	A	明知大
曉星女大經營經濟	A	曉星女大	經濟研究	SA	漢陽大
經濟科學	A	大邱大	貿易論叢	A	外大
經濟論集	SA	忠南大	釜山商大論叢	SA	釜山大
經營經濟	A	啓明大	商經論集	A	東義大
經營經濟論叢	A	東國大	商經論集	A	서울市立大
經營經濟研究	A	釜山大	產業經濟研究	A	弘益大
經濟經營研究	A	慶北大	韓國經濟	A	成均館大
經濟經營研究	A	外大	國際經濟研究	SA	世宗大
經濟論集	Q	서울大	經濟論叢	A	京畿大
經濟論叢	A	國民大	經濟論叢	A	高麗大
產業斗經營	SA	延世大	經濟研究	A	弘益大
經濟學論究	A	清州大	經濟學論集	SA	中央大
經商論叢	SA	西江大			

2. 學會發刊誌

誌 名	刊 種	發 刊 處	誌 名	刊 種	發 刊 處
經濟學研究	A	韓國經濟學會	貿易學會誌	A	韓國貿易學會
經濟史學	A	韓國經濟史學會	勞動經濟論集	A	韓國勞動經濟學會
農業經濟研究	A	韓國農業政策學會	韓國租稅研究	A	韓國租稅學會
財政論集	A	韓國財政學會			

3. 英文學術誌

誌 名	刊 種	發 刊 處
<i>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i>	Q	韓國國際經濟學會
<i>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i>	A	世宗大
<i>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i>	SA	中央大
<i>Korean Economic Review</i>	A	韓國經濟學會
<i>Quarterly Economic Review</i>	Q	韓國銀行
<i>Seoul Journal of Economics</i>	Q	서울大

資料：서울大 中央圖書館 所藏資料目錄, KIET 圖書館 所藏資料目錄

註：1) 個人的인 調査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主要한 學術誌이더라도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것임,

2) A：年刊, SA：年二回, Q：季刊

참고로 이와 같은 量的 成長을 보이고 있는 經濟學者들의 活動分野를 살펴보면,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시 大學敎授職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韓國開發研究院, 産業研究院 등의 政府出捐 研究機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 數에 있어서 大學에 있는 사람의 1/10에 미치지 못한다.⁽⁷⁾ 각종 政府機關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私設研究機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企業의 附設研究所 등 각종 사설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경제학자의 수가 급격히 팽창될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 經濟學界의 質的인 成長을 어떤 客觀的인 指標를 통해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우선 연구활동이 활발해진 증거의 하나로서 <表 5>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수의 經濟學 學術誌 등이 발간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거의 모든 大學이 각각 하나 이상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각종 學會에서도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다. 이에 『開發研究』 등 각 研究所에 의해 발간되고 있는 학술지까지 합치면 매우 많은 수의 經濟學 關係 學術誌가 발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英文으로 된 학술지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韓國의 經濟學이 世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들 학술지가 世界 경제학계의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긴 年輪이 쌓여야만 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처지는 다만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평가라고 느껴지지만, 일단 그 노력을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質的 成長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英·美의 유수한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례와 더불어, 世界的으로 그 權威가 인정되고 있는 學術誌에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筆者가 굳이 이 경향을 數量化하여 입증하지 않더라도, 經濟學界의 動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海外에서 거둔 韓國 經濟學界의 成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但書를 붙여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비록 韓國人 경제학자가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젊은 경제학자가 助敎授의 수준으로 취업한 것에 불과하며 國際的으로 인정받을 수준의 中堅學者들은 아직 거

(7) 最近에 經濟企劃院, 商工部 등의 부서 산하에 몇개의 研究所들이 광립되어 이곳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늘게 되었지만 아직도 大學에 비하면 엄청나게 격차가 있다.

의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단지 현재의 성과만으로 한국인 경제학자가 世界 經濟學界에 발판을 굳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젊은 世代에 의해 橋頭堡 정도가 확보된 상황이라는 것이 보다 올바른 비유일 것이다.

이 점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韓國人 經濟學者가 쓴 연구업적이 國際的인 學術誌에 실리는 빈도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 質에 있어서는 뛰어나다고 할 만한 것이 아직도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理論版圖에 영향을 줄 정도의 大作들은 아직 그 수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日本이나 印度 혹은 臺灣 같은 아시아국가에 비해 훨씬 落後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經濟力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더욱 낙후되었으면 낙후되었지 결코 앞섰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한 大學에 진출하거나 권위있는 學術誌에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의 활약이 國內의 基盤을 直接的인 舞臺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國外的 기반을 무대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이들 世界舞臺에서 활약하고 있는 韓國人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學部教育만을 國內에서 이수하고 本格的인 大學院教育은 거의 모두 海外에서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경제학계의 限界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계속 海外에 잔류하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경제학계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술지에 실린 韓國人 경제학자의 글이 國內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닌 한 완전한 한국 경제학계의 업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물론 韓國 經濟學界의 質的 成熟을 앞에서의와 같은 海外進出의 정도로서만 가늠해서는 안 될 것이다. 國內의 研究勢圍氣의 성숙도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점에 관해 어떤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公式·非公式의인 모임을 통한 경제학자간의 交流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의 著作活動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韓國 經濟學者의 專攻分野別 人員構成을 보면 <表 6>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 분야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 우리 學界가 質的 成熟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불과 20년전이라면 이와 같은 多樣的 專攻分野의 分布를 보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表에 제시되어 있는 전공분야별 인원구성의 統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表 6〉 專攻分野別 人員構成

專 攻 分 野	人 員 數	專 攻 分 野	人 員 數
經 濟 計 劃·政 策	11	巨 視 經 濟 學	23
經 濟 史	34	其 他 理 論 經 濟 學	20
經 濟 成 長·發 展·變 動	45	人 口 經 濟 學	3
經 濟 學 說 史	12	資 源 · 環 境	10
計 量 經 濟 學	27	財 政 學	52
國 際 經 濟 學	154	地 域 · 都 市	20
勞 動 經 濟 學	39	韓 國 經 濟 論	10
農 業 經 濟 學	46	貨 幣 金 融 論	47
比 較 經 濟 制 度	7	厚 生 經 濟 學	12
產 業 組 織 論	24	其 他	45
數 理 經 濟 學	7		
微 視 經 濟 學	24	合 計	682

資料：韓國經濟學會會員錄(1988年度版)

수 있는데, 그것은 專攻을 國際經濟學으로 하고 있는 경제학자의 숫자가 무려 154名이나 되어 자신의 전공을 밝히고 있는 사람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우리 經濟가 對外指向의인 成長을 지속해 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成長패턴이 問題意識의 提供이나 專攻人力에 대한 需要의 측면에서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量産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經濟成長·發展 및 變動의 이론을 자신의 전공으로 밝히고 있는 사람도 45名이나 되어 財政學이나 貨幣金融論 같은 주요 이론 분야의 전공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 經濟學界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⁸⁾ 國際經濟學과 發展理論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것은 우리의 經濟現實을 감안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귀결임이 분명하다. 筆者는 이 현상을 가지고 현재 韓國 經濟學界에서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批判點 하나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批判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학계가 西歐經濟學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自己反省이 분명히 의미있는 것임에 의의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 節에서 논의될 「韓國經濟學」의 定立이란 과제가 우리 학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기반성의 度가 지나친 나머지 우리 경제학계가 서구경제학의 盲目的 移植에만 문두해 왔다는 결론을 끌어 내는 것도

(8) 비록 지금은 다른 分野로 전공분야를 택하고 있다 할지라도 學位論文이 發展理論 혹은 韓國의 發展이란 주제를 택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